

모바일 융합 R&D전문기업 육성방안

김기봉*, 김근채**, 최새봄***
대전보건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주)미주씨앤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he Upbringing Plan of R&D Special Enterprise in Mobile Convergence

Ki-Bong Kim*, Geun-Chae Kim**, Sae-Bom Choi***
Dept. of Computer Information,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Miju Consulting & Development Inc.**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요약 최근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IT 변화를 주도하는 모바일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앱, SNS, 빅데이터 등 모바일 관련 다양한 융합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모바일 융합, 중소기업 지원, 엑셀러레이터, R&D전문기업, ICT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the convergence and innov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order to realize the creative economy. So, a creative economy ecosystem has been set up to realize the creative economy for small businesses growth and small business happiness. According to proliferation of mobile area taking the lead in the recent IT transition, development of various convergence technologies related to mobile such as mobile Apps, SNS, and big data have been promoted. For realizing government's creative economy, systematic raising plan to create newly value-added market and occupation being considered with developing technology for mobile convergence based on imagination and creativity of small businesses is proposed in this paper.

Key Words : Mobile Convergence, Supporting Small & Medium Business, R&D Special Enterprise, Accelerator ICT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발전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

*본 논문은 2013년도 중소기업청 R&D 정책연구에 의해 지원되었음.

Received 13 February 2014, Revised 10 March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Ki-Bong Kim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Email: kbkim@hit.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출하는 신성장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신성장, 후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및 시장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진행으로 중소기업 및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 및 배려는 미흡하게 추진되어 왔다. 한국의 ICT시장은 급격한 성장 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새롭게 선도해 나갈 분야는 모바일(Mobile)이다.

최근 IT변화를 주도하는 모바일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앱, SNS, 빅데이터 등 모바일과 연관된 다양한 융합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모바일 분야는 한국의 ICT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며, 이를 위한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외 모바일 융합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IT 융합기술의 시장 전망과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모바일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 지원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6장에서 모바일 융합 R&D 전문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7가지 제안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였다.

2. 국내외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 현황

2.1 모바일 기술개발을 위한 ICT분야 중소기업 현황

국내 모바일 기술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의 전체 기업은 1,639개이며, 대기업이 24개(1.5%), 중소기업 1,615개(98.5%)로 조사되었다 [Table 1][1].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는 1,270개, 전체의 49.5%가 10인 이하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한국콘텐츠진흥원, 2011)으로 조사되었으며,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 활동, 경험 부족으로 기술개발 외 홍보 및 마케팅,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Enterprise Present state of software development

Division	S/W development			Computer Programming	Total
	Game S/W	System · App. S/W	Sub Total		
Large Business	9	14	23	1	24
Small & medium Business	80	1,322	1,402	213	1,615
Total	89	1,336	1,425	214	1,639

모바일 기업 중 가장 선진하고 있는 분야는 모바일 게임 부문으로 대표적 모바일 게임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3년 7월 현재 천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게임이 모두 7종에 이르며 2012년 매출액은 약 462억으로 2011년 매출액 약 18억원 대비 25%이상 성장하고 있다[2].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인력 현황은 16,900명으로 조사되었다[Table 2][1].

(Table 2) The human resource state of software development

Division	Software development			Computer Programming	Total
	Game S/W	System · App. S/W	Sub Total		
PH D	123	413	536	47	583
Master	114	2,766	2,880	187	3,067
Bachelor	1,461	9,677	11,138	1,042	12,180
The others	140	822	962	108	1,070
Total	1,838	13,678	15,516	1,384	16,900

2.2 모바일 융합제품 개발 현황

모바일 융합제품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이동통신기술, 프로그래밍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기술 및 산업의 고도화를 창출하는 제품이다.

2.2.1 해외 모바일 융합제품 현황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웨어러블(Wearable) 컴퓨팅, 헬스케어(Health Care)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융합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글 클래스, Smart Watch, Nike FuelBand 등이 있다 [Fig. 1][3].



[Fig. 1] The foreign mobile convergence products (Google Glass, Smart Watch)

2.2.1 국내 모바일 융합제품 현황

국내 모바일 융합제품의 사례는 삼성 갤럭시 기어, LG 포켓프린터,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피부수분 측정기(Epi) 등이 있다[Fig. 2][4].

국내 모바일 융합제품의 상용화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일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Fig. 2] The domestic mobile convergence products (Galaxy Gear, LG Pocket Printer)

3. IT융합기술의 시장전망 및 요구사항

3.1 IT융합기술의 시장전망

IT융합 세계시장은 2010년 1조2,000억 달러에서 2020년이면 3조6,00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5] 국내 IT융합의 생산규모도 '07년 38조7,000억원에서 '11년 49조7,000억원으로 4년간 11조원이 증가되었고 향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는 2020년에는 11조원으로 현재보다 2.4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국내에서는 아직 산업융합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국내 융합기술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산업 분야별 약 5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모바일 시장동향

2013년 현재 세계 모바일 기기 이용자수는 약 32억명,

2018년에는 4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7]. 무선통신 분야도 2017년까지 30억 개의 모바일 회선이 증가해 연평균 7.6%의 성장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생태계는 통신 및 관련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자동차,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상호 연결되고 있다.

세계 모바일 앱 이용자 수는 2012년에 약 12억명,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라 연평균 29.7%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약 44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

앱 다운로드 수는 2012년에 460억 건에서 2013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약 820억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을 기점으로 App 사용시간은 웹서핑 시간을 추월하였고 2011년의 App 사용시간은 100분(1일)을 초과하였다[8].

2012년 세계 GDP의 1.4%를 차지한 모바일 사업자들의 매출은 향후 5년간 평균 2.3%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7년에는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모바일 생태계 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평균 4.7%씩 성장하여 2017년 2.2조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7].

3.3 중소기업의 모바일 융합기술 요구사항

2012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2%는 기업간 융합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소기업(83.7%)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90.5%)에서 융합추진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

모바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문 연구개발 인력난과 관련 융합기술의 습득 및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모바일 융합제품에 대한 수요는 신규사업의 발굴과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 및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 제품이 시장의 혁신 사례로 꼽히고 있다.

4. 모바일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현황

4.1 국내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 지원현황

국내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모바일 앱 개발, 엑셀러레이터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10,11].

첫째, 모바일 앱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청의 스마트 앱 창작터와 서울, 대전, 부산 등 지자체에서 스마트 앱 공모전 등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둘째, 엑셀러레이터 구축·운영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 K-스타트업, 중소기업청의 스마트 벤처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R&D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사업 등 IT와 주력산업 또는 IT 신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해외진출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K-App글로벌마켓 진출 사업을 통해 모바일 앱(App) 개발사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스마트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업체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4.2 해외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 지원현황

4.2.1 주요 선진국의 IT기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미국은 국민의 창조성과 상상력에 투자하여 미래의 일자리와 산업을 창조하기 위하여 인력, 과학연구,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혁신의 엔진인 미국 기업들의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미국의 혁신을 위한 전략(2009&2011)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12].

유럽연합(EU)은 디지털 기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연함을 출범하기 위한 Digital Agenda for Europe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쉬운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모토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2].

핀란드는 중소기업의 자체 R&D를 통한 수익창출은 장시간 소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기업(노키아)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노베이션밀(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R&D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13].

일본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IT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신에너지산업, 헬스케어산업, 창조산업(관광, 문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이니셔티브(2012)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4].

4.2.2 해외 민간부문 모바일 분야 지원사례

미국의 벤처 사업가인 Paul Graham이 2005년에 Y-Combinator를 설립하여 예비창업자 팀당 14,000~20,000달러까지 차등 지원하여 Dropbox, Airbnb, SocialCam, OMGPOP, Reddit 등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있다[10].

KICKSTARTER는 일반 사용자가 제품 개발에 돈을 투자하고 해당 제품이 완성되면 보다 빠르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펀딩 프로젝트이며[15], Crowd Sourcing의 Quirky에서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부전문가나 일반 대중이 참여하여 혁신을 달성하면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16].

5.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

국내·외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현황과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우리나라는 모바일 융합분야 기술개발관련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은 모바일 앱(App)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1인 또는 소규모 기업으로 창업 초기자금(Seed Money), 개발공간, 전문가 멘토링, 교육훈련, 기타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모바일 기술개발 중소기업은 개발인력 부족하여 융합기술의 습득 및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매출과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셋째, 모바일 분야 R&D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 중소 제조업체와 모바일 기업, 대기업간 모바일 융합기술개발 활성화가 미흡하고 산·학·연간 매칭해서 지원하는 융합형 모바일 R&D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 국민 누구나가 모바일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바일 기술개발 성공사례, 홍보 및 마케팅 채널도 부족하다.

다섯째, 모바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

이 필요하며 다양한 해외진출 유형(단순 마케팅, 해외정착, 해외IR, 제품 해외유통 지원 등)을 통합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모바일 기술개발관련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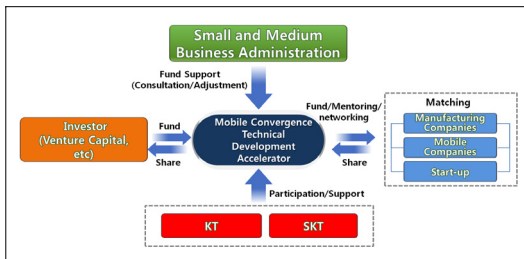
6. 모바일 융합 R&D전문기업 지원방안

모바일 분야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바일 융합 R&D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참여확대를 통한 R&D전문기업을 육성을 위한 6가지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6.1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 엑셀러레이터 구축 운영

모바일 융합분야 중소기업(모바일 기술개발 또는 제조업체)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인 엑셀러레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모바일 산업발전과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관(협회 등)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모바일 융합기술개발 엑셀러레이터는 발굴, 육성, 운영, 사후관리의 4단계로 프로세스 단계별 추진내용은 <Table 3>과 같다.

엑셀러레이터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제조, 모바일) 간 매칭형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대기업(KT, SKT 등)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한다.



[Fig. 3] Accelerator execution system

중소기업청은 모바일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엑셀러레이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전담기관을 통한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제조기업, 모바일 기업, 예비창업자간 매칭형 융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KT,

SKT 등 대기업(통신사업자)은 모바일 기술보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투자자는 벤처캐피탈, 클라우드 펀딩(소셜펀딩) 등을 통한 자금을 지원한다.

<Table 3> The Phase of drive contents

phase	drive contents
① sc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ut of Small & Medium for mobile convergence skill development ▪ matching between development enterprise and manufacture enterprise ▪ normal/abnormal consulting meeting
② ma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ing mentoring and education - planning, development, marketing etc. ▪ supporting mobile convergence development R&D and infra
③ 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ing attraction of investment, construct networks and exchange activity ▪ activation of mobile development conference
④ after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ing marketing and market ▪ supporting foreign inroad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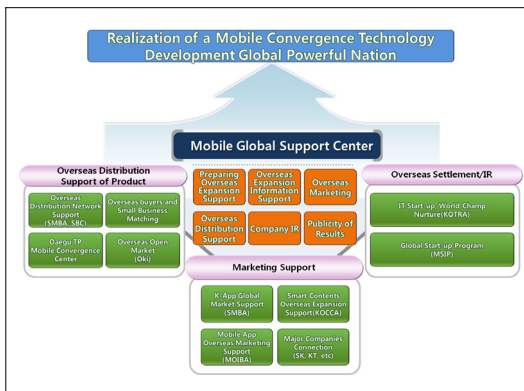
6.2 모바일 기술개발 연구인력 유입 및 활성화

모바일 기술개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연구인력 유입 및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모바일 기술개발 교육훈련은 대학교, 연구소, 민간 정보화 교육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모바일 융합 전문교육과정(대학 특성화 학과, 산학협력 대학원 신설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앱(App) 개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신기술, 임베디드 기술, 테스트 및 인증기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모바일 기술개발 연구인력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엑셀러레이터는 모바일 기술개발 수요기업 발굴 및 분류를 위한 온라인 채널(웹사이트, SNS 등)을 구축하고 신규 융합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업간 매칭, 인력 Pool 구축, 업계 전문 엑셀러레이터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3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기존의 공공 및 민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일 글로벌 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에 맞춤형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축적된 인프라와 노하우를 시스템화 해야 나가야 한다[Fig. 4]. 기존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단순 마케팅, 해외정착 지원, 해외IR, 해외 유통 지원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모바일 글로벌 지원센터를 통해 축적된 인프라와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해외진출에 대한 매뉴얼화를 추진하고 모바일 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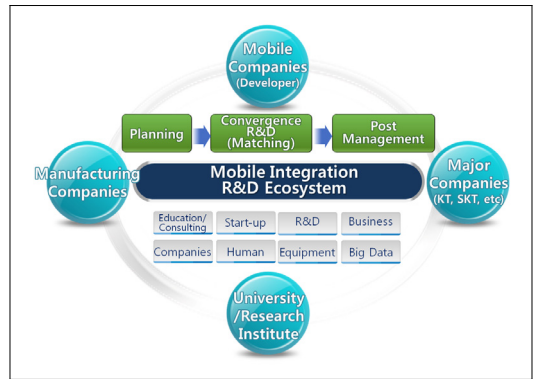
[Fig. 4] Mobile global support center composition and operating system

6.4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지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융합 및 모바일 확산에 따라, 기획-융합R&D수행-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통합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Fig. 5]. 모바일 기업(개발자)과 제조업체, 대기업, 대학교, 연구소가 참여하는 매칭형 통합R&D 지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단계에서는 모바일 기술개발 수요조사 및 아이디어 발굴, 모바일 융합 컨설팅(기술/인력/자금/사업화), R&D 과제 기획을 수행하고 융합R&D 매칭단계는 모바일 R&D 융합과제 신청-접수-수행하며, 모바일 융합 R&D 과제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문기업(개발자),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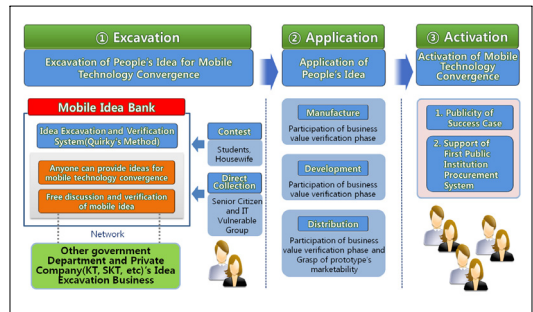
대학교/연구소와 매칭을 지원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과제수행 평가, 마케팅 지원, 해외 수출 지원, 수익 발생시 이익배분, 모바일 R&D전문기업 선정 등을 추진한다.



[Fig. 5] Integration R&D support system of mobile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6.5 모바일 융합 국민 아이디어 발굴-적용

국민 누구나가 아이디어를 불편 없이 제공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발굴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아이디어 뱅크를 구축하고 국민 아이디어 적용 및 사업화를 통한 모바일 기술융합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Fig. 6].



[Fig. 6] The people idea bank of mobile convergence

6.6 모바일 기술개발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모바일 기술개발 저작권 보호를 체계화하고 국내법에 의한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며 모바일 R&D전문기업 인 증제도와 모바일 기술개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네가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바일 앱개발 시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앱 서비스 중에 짝퉁 앱이 출시되

어 유료 앱을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바일 분야는 기술개발 및 서비스 속도가 빠르게 따라, 관련 저작권 보호도 체계화 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앱과 해외 앱이 국내에서 경쟁 시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 모바일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나, 해외 기업은 의무사항에 벗어나는 등 국내법에 의한, 역할별 현상은 거시적으로 법적 규제 자체의 적용이 해외 기업과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모바일 융합 R&D 과제수행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자체개발을 통한 사업화 성공기업에 대해 모바일 R&D전문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세제 혜택, 국가 R&D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이 반영된 '모바일 R&D전문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바일 R&D전문기업 인증제도는 부설연구소(연구진담부서)를 설립하기 어렵거나 소규모 모바일 R&D기업도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바일산업의 정책연구 및 수립, R&D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신용보증, 세제 지원,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모바일 융합기술개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내 모바일산업의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7. 결론

우리나라 ICT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선도해 나갈 분야는 모바일분야이다.

모바일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R&D지원, 세제혜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 R&D전문기업'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제조기업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융합제품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KT, SKT 등), 투자사, 정부/지자체 등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험 및 인증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융합 인프라를 확대하여 모바일 산업을 가속화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모바일 융합기술개발 중소기업 발굴, 육성, 운

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를 구축·운영하여 세계시장 선도형 제품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융합기술 및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is supported by 2013 Small & Medium Business R&D Policy Study.

REFERENCES

- [1] "A Report of investiga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Ministry of Education, 2012. 12.
- [2] Kim Minsik, "A suggestion and case analysis of evolution cacao in platform",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3. 7. 16.
- [3] "A Activation Plan of Convergence Industry base on ICT",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3. 6.
- [4] " A Application plan and task of prospect ICT technology for creative econom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7.
- [5] "A Strategy of IT Convergency Diffu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10.7.21.
- [6] "NIPA News(2012-4)",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2. 11. 8.
- [7] "2013 International Mobile Economy Trends and Future Prospect", Korea Communications Agency, 2013. 4.
- [8] Yoo Sunsil, "A recent present state of Mobile AppStor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3. 6. 17.
- [9] Yang Hyunbong, "A Suggestion and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rgency Activity",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2012. 9.
- [10] Kim Josung, Hong Daehye, Keun Boram, "A

Operational Example and Internal/External state of Accelerator”, ETRI, 2013. 6. 19.

- [11] Lee SungKyan, "A Policy Plan of Creative Convergency Technology for R&D Infra Construction",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2. 6. 25.
- [12] "An Analysis of Foreign Venture-Small and Medium Business Policy for Creative Economy Implementation",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3.
- [13] "A Suggestion and Variation of Foundation Ecosystem in Recent Finland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3. 5.
- [14] "An IT Creative Economy going Global Tren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2.
- [15] "An Analysis of Legislation Trend and Internal/External present State of Cloud Funding.", ETRI, 2013. 10. 7.
- [16] Kong Youngil, "Social Product Development Platform: Quirk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3. 8. 1.

최 세 봄(Sae Bom Choi)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 2005년 2월 ~ 2009년 4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재직
- 2009년 5월 ~ 현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선임연구원 재직
- 관심분야 : Embedded System, Mobile Storage Network

· E-Mail : saebom@keit.re.kr

김 기 봉(Ki_Bong KIM)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전산학과 (이학사)
- 1993년 2월 : 충남대학교 전산학과 (이학석사)
- 1998년 8월 : 충남대학교 전산학과 (이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IT융합, 의료정보시스템
 · E-Mail : kbkim@hit.ac.kr

김 근 채(Geun_Chae KIM)



- 2000년 2월 : 한밭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사)
- 2012년 7월 ~ 현재 : ㈜미주씨앤디 대표이사
- 관심분야 : IT융합, 사업기획, ISP/BPR, PMO
- E-Mail : kckim@mijucnd.co.kr